

“장르·세계관·테마 유사” vs “분위기로 저작권 판단 못해”

〈넥슨〉

〈아이언메이스〉

저작권 분쟁 3차 변론 공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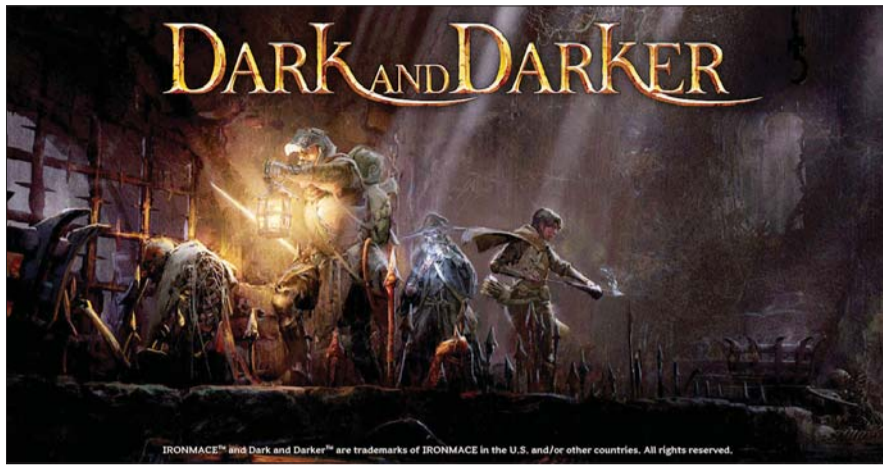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저작권 분쟁 관련한 3차 변론 공판이 진행됐다. 창작물에 대한 쟁점과 더불어 저작권 공표 범위 등에 관한 양측의 입장이 대립됐다.

10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저작권 분쟁 관련 3차 변론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제작 및 배급하는 익스트리션 RPG(역할 수행게임)로, 넥슨은 해당 게임이 자사가 내부에서 개발하다 중단된 ‘P3 프로젝트’를 아이언메이스가 무단으로 도용해 제작한 것이라고 보고, 아이언메이스를 고소한 바 있다.

지금까지 총 3차 변론이 진행됐다. 지난 5월 진행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1차 변론에서는 넥슨의 ‘P3 프로젝트’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게임의 유사성 문제가 쟁점에 섰다. 이어 7월 2차 변론이 진행되면서 게임 내 ‘탈출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쟁점이 또 다시 화두에 올랐다.

이번 3차 변론에서 주를 이룬 핵심 쟁



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 이미지.



넥슨 “P3 프로젝트 아이디어 빼내 회사 차리고 ‘관련게임 출시’가 문제”

아이언메이스 “예외적 창작자 인정 ‘객관적 인식 가능’ 상태 확인해야”

점 역시 게임 간 유사성이었다.

가장 먼저 저작권의 보호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만큼 넥슨은 ‘P3 프로젝트’에 대한 창작성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넥슨은 자사가 개발 중단한 ‘P3프로젝

트’가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PVP)모드에서 플레이어 대 환경(PVE)이 더해진 장르, 중세를 바탕으로 한 세계관, 주요 테마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넥슨 대리인은 “이 같은 요소는 어떤 게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 P3 프로젝트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이 요소가 다크앤다커에도 다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 대리인은 “한껏 한껏 스틸 컷의 어떤 분위기의 유사성으로만 저작권 침해 등 항목을 판단하게 되면 이 선행 게임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게임은 사실상 없게 되는 것이다”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어 논리를 이었다.

스티컷으로 하나하나 비교할 게 아니라 전체 흐름으로 비교해야지, 넥슨 측의 주장대로라면 선행 게임(창의성이 인정받는 최초의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게임은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어 유사성에 대한 쟁점으로 넥슨 대리인은 장르, 세계관, 테마 등에 관계구체적인 요소를 영상으로 짚으며 양 게임 간의 유사성을 주장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대리인은 P3 프로젝트와 유사성이 있는 다른 게임들을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다.

그러나 넥슨 대리인은 다시 “이는 부분적 요소에 불과하며, 다크앤다커는 상당 부분 많은 게임 요소가 유사하다”

고 재반박을 펼쳤다.

저작권 공시 요건에 대한 쟁점도 나왔다.

넥슨 대리인은 “P3 프로젝트’는 저작권 공표 예정이었던 프로젝트”라며 이를 넥슨 직원으로 있던 최주현 탐정이 아이디어를 빼내, 아이언메이스라는 회사를 차리고 ‘다크앤다커’ 게임을 출시한 배경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피고 아이언메이스 측 대리인은 업무상 저작권 공시 요건에 관해 언급하며 “입법 취지를 봐야 한다”며 “창작자가 아닌 자를 예외적으로 창작자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시 기능을 통해서 법적 안정성을 피하고자 한 것이 법의 취지다. 공표 예정인 경우에 어떤 내심의 의사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 인식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늘 첫 번째 진행 사건 기준 정리하고 각 후속 사건에 대해서 별도 쟁점이 있는 부분을 따로 정리해 심리를 마무리할 것을 밝혔다. 최종 판결 선고는 판결 선고 10월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외국인으로 다시 활기... “K-패션 모여있어 좋아”

현장르포

명동거리 가보니

외국인 관광객 코로나 이전의 62% 2022년 초 공실률 42%→2.4%로

“명동은 내가 가고 싶은 모든 가게가 모여 있어 자주 온다. K패션을 좋아하는데 ‘뉴뉴’부터 ‘에이랜드’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옷가게가 한곳에 모여 있는 점이 제일 좋다.”

10일 서울 명동에서 만난 외국인 교환 학생 에밀리(21)씨는 이 같이 말했다. K-패션과 뷰티에 관심이 많은 MZ세대의 젊은 외국인이 늘어나며 명동 상권 역시 트렌드를 반영해 변화하고 있다.

로드숍이 있던 자리에는 올리브영이, 지하에 있던 음반 가게는 고층 건물로 올라와 K메카(케이팝 굿즈숍)로 탈바꿈했고 이미스(한국 디자이너 브랜드), 아디다스, MLB와 같은 브랜드숍



편집숍 ‘에이랜드’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전지원 기자

역시 눈에 띄게 늘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의 약 62%까지 회복한 가운데 전체 관광객 중 30세 이하 관광객은 35.6%를 차지했다.

프랑스에서 방문한 레아(27)씨는 “한국의 여성스러운 패션을 좋아해 옷을

사러 왔다”며 “프랑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스킨케어 제품도 좋고 근처 굿즈숍에서 한국 아이돌 멤버의 포토카드까지 구매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프랑스보다 가격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며 “그래서 명동에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많을 것 같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초 명동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42.1%에 달했으나 지난해 말에는 19.7%로 절반이나 감소했다. 올해 1분기에는 공실률이 1.8%까지 급감했다.

다만 2분기부터는 2.4%로 소폭 상승했다. 상가임대료(1㎡ 기준)도 1분기 14만1600원에서 2분기 14만2900원으로 소폭 올랐다.

박용학 한국부동산지회 명동분회장은 “코로나19 이후로 상권 공실률이 높아져 상권 회복을 위해 임대료를 코로나19 이전보다 50%가량 낮췄다”며 “임대료가 낮아진 대신 공실률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분회장은 “다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임대료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70%까지는 높아질 것”이라며 “그만큼 공실률도 지금보다는 올라가는 건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환경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생활폐기물 관리 나서

환경부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및 과대포장을 예방하기 위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포장재, 음식물 등 명절 쓰레기 발생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배출 및 수거가 원활하지 않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기차역 등에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리상황반’을 운영해 연휴 기간 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관리한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쓰레기 수거일을 미리 알려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단독주택 주변 등에 ‘분리수거함’과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추가로 비치해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기동청소반’을 운영해 주택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나 재활용 폐기물이 신속히 수거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민간 선별장’의 여유 공간 확보 및 ‘임시보관장’을 추가로 지정해 폐기물을 처리한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많이 버려지는 종이상자, 스티로폼, 플라스틱 용기 등의 분리배출 요령을 각 지자체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안내한다. 귀성객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전광판을 활용해 분리배출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단독 주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계도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김대환 기자 kdh@

추석 항공권·택배 소비자 피해 ‘주의보’

한국소비자원·공정위 항공권 구매 취소시 과도 위약금 등 연휴 전후 9~10월 피해구제 신청 증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이나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항공권, 택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며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또 비대면·온라인 거래 선호로 소비자들의 택배 이용도 계속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해외 여행객은 2021년 122만 명 수준에서 지난해 2271만명으로, 택배 물량은 같은 기간 36억3000만박스에서 45억박스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항공권은 17.8%, 택배는 17.7%를 차지한다.

주요 피해 유형을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택배는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의 경우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와 관련해서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